



전국소년체전 우승에 이어 내달 속초에서 열리는 스포츠 토트배우소년아구대회 정상까지 노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성초 야구부원들.



대성불패! 백전백승! 전국최강! 천하무적!

“임창용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스포츠 포커스

광주 대성초 야구부

학교·학부모 '장외 응원' 힘입어 올소년체전 제패 등 황금기 열이 른듯한 기본기·맞춤형 훈련 힘뭉쳐 내달 스포츠 토트배우 목표 '구슬땀'

"대성불패! 백전백승! 전국최강! 천하무적!" 광주대성초등학교(교장 김순철) 야구꿈나무들이 자신들이 속한 야구부에 대해 즉흥적으로 밝힌 재치있는 '내글자 표현'들이다. 그들의 내글자 표현은 막연하거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 '최강'이나 '불패'나 하는 것은 그들이 직접 체험한 사실이다.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대성초야구부는 전국소년체전 1·2차 예선 우승, 춘계야구대회 우승에 이어 급기야 전국소년체전까지 휩쓸었다. 특히 소년체전 제패는 지난 1964년 창단이후 야구부의 역사에 뚜렷이 새겨놓을 쾌거였다. 바로 '대성의 후예'들이 맡고있는 큰 일을 이뤄낸 것이다. 대성초가 최근 4년새 막강 전력을 갖추게 되기까지에는 학교·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장외 응원'과 이에 힘입은 감독·선수들의 신바람 훈련이 조화를 이룬 상승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 오전에 내리던 장맛비가 잠시 그친 오후 대성초 실내야구연습장. 수업 후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선수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어린 2학년 막내들부터 6학년 고참까지 총 18명. 모두가 한창 친구들과 장난치고 떠들며 뛰다니는 개구쟁이들이지만 유니폼을 입은 모습에서는 역시 선수다운 진지함이 보였다. 신경호 감독의 훈련 시작 소리에 쓴살같이 운동

장으로 나와 캐치볼을 시작한다. 잠시 후 한 선수의 큰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소리 한번 가지요." 그 뒤를 이어 선수들 모두 함창에 따라한다. 연습 중 기(氣)를 불어넣기 위한 함성이다. 비록 어린 선수들이지만 운동시간 만큼은 땀신 두둑한 기와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 중·고생 형들처럼 엄격한 규율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대성초 야구부는 매일 4시간씩 베이스 런닝·캐치볼·수비 기본기 등 탄탄한 기초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감독과 코치는 선수 개인별 장·단점을 파악해 능력에 맞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체전 우승의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지도 방법과 지난 동계훈련을 통해 쌓은 기초체력·기본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막강한 수도권팀들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혀온 것도 기량향상에 큰 힘이 됐다. 아울러 전천후 운동이 가능한 실내연습장과 현대식 장비로 선수들이 오직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변 여건도 한 몫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박찬호·이승엽·이종범 선수' 등을 꼽았다. 함창 후에 누군가 '임창용 선수'라고 답했다. 비록 이들의 선호도에서 앞선 순위는 아니었지만 일본프로야

구 야쿠르트에서 투수로 활약 중인 임창용 선수가 바로 대성초 출신이다.이밖에도 KIA 정성철·SK 박상현·롯데 김대우·하이에코즈 임창민·한화 신종길 등이 국내 프로무대에서 뛰고있는 '대성맨'들이다. 18명의 꼬마 군단은 이처럼 뛰어난 선배들의 뒤를 잇고자 피약별 아래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내일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소년체전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나승호(6년)는 뛰어난 제구력과 완투능력을 갖춘 잠재력 투수이다. 소년체전 2차예선에서 홈런왕을 차지한 신범수(6년)는 2루 송구와 경기 운영능력이 뛰어난 포수이다. 3루수 강용환(6년)은 170cm의 좋은 신장에 빠른 직구를 갖고 있어 투수로도 활약하는 멀티플레이어. 유격수 김윤호(6년)는 기동력이 뛰어나고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쳐 지난 춘계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신장 171cm로 팀에서 가장 큰 좌익수 배주성(6년)도 파워있는 배팅으로 춘계대회에서 홈런왕에 오른 유망주이다. 이밖에도 강한 어깨로 외야 수비능력이 뛰어난 3루수 박광우(6년)와 주루 플레이가 좋은 2루수 심민상(6년), 공·수·주가 뛰어난 유격수 신익수(5년) 그리고 타격이 정교한 유격수 김민혁(5년)도

팀 전력에 주축이 되고 있다. 또한 체격은 작지만 수비가 뛰어난 2루수 이재홍과 이호준(1루수·5년)·정진수(중견수·5년)·양도열(중견수·5년)·명효준(우익수·5년)·박건은(좌익수·4년)·안병국(중견수·4년)·김진기(포수·3년)·서형민(우익수·2년) 등도 '내일의 이승엽·박찬호'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제 대성초야구부의 목표는 내달 16일 속초에서 열리는 스포츠 토트배우 소년 야구대회이다. 전국의 모든 초등팀들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야구왕'을 뽑는 대회에서 다시 '대성불패·전국최강·천하무적'을 외치고자 한다. 넘쳐 못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운동에 열중하는 야구 꿈나무들이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갖춘 '막강 대성맨'이 되길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1 225-1688 H.010-3565-2888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파워마카 100(분말) (마카원료로만 100% 함유된 제품임) 1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